

노량진(오전)	6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에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4월 24일 (제1146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그리움의 향기

아들이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들에게 유학시절 머물던 집에 작은 선물이란도 보내라고 가르쳤다. 떠나온 곳에 그리움을 선사하라는 뜻이다. 왜? 강물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듯 사람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떠나온 곳에 똥을 싸고 오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리움이란 향기를 남긴다.

그리움이란 어쩌면 사랑보다 진한 것일 수 있다. 기차를 타고 가다 골목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그 집안에 행복이 보이고, 옛 그리움이 솟는다. 계곡이 흐르는 곳에서 여인네들이 빨래를 하고, 개구쟁이들이 물장구치는 그림을 보자면 보이지 않는 산속의 작은 집이 내 안에 그려지고, 말이 꽃밭을 밟고 지나가는데 나비가 그 위를 나는 그림을 통해서도 진한 향기를 맡는다. 이처럼 그리움이란 향기는 아련하나 향수보다 진하다.

무슨 사연으로 나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나를 찾는 것은 이런 그리움의 향기 때문 이리라.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웠노라, 보고 싶었노라' 한다. 내가 '떠나는 자에게도 카펫을 깔아줘라' 하는 말은 그리움이란 향기를 선사하고 싶어서다. 헤어짐은 재회를 전제하는 것 아니겠는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힐 때 그 집에 똥이나 싸서 뿌리고 왔다면 어찌 되었을까. 총리대신이 되었을 때 분명 보디발을 다시 만났을 터, 그 재회가 매우 곱기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묵묵부답으로 그리움이라는 향기를 남겼기에 재회의 기쁨을 누렸으리라.

'까짓 다시 안 볼 건데.' 하지 말라. 세상사는 알 수 없는 법, 옛말에도 '침 뱉은 우물, 사흘도 안 돼서 도로 먹는다'고 했다. 타고단 어느 목사가 내게 와서 자신이 몸담았던 교회와 목사를 힐끗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을 받아줄 것을 부탁했다. 나는 그가 유능한 것은 알았지만 거절했다. 그는 언젠가 나에게도 침 뱉을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자가 가장 아름답다. 그리움이란 향기를 남기고 떠나라. 가슴 벅찬 재회를 위해!

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만 2년 간 계속돼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해제되었다. 이 또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온 결과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얼마나 갈망했던 예배인가. 서너 명의 스태프들과 아무도 없는 88체육관 방송실에 틀어박혀 방송예배를 진행하던 시간들, 목사님께서 본부 사무실에서, 기도원 정원에서 방송메시지를 촬영하던 때도, 정말 이 또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지나간다. 긴 터널이었지만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올해 들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드디어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나는 기도원집회를 열겠다고 마음먹고 목사들에게 5월 첫 주나 둘째 주 가운데 계획을 잡으라고 했더니 둘째 주가 좋겠다고 해서 오는 5월 9일부터 기도원집회가 열립니다. 목사들은 이에 화답하여 당장 이번 주일부터 총동원을 선포하고 총력전도의 불을 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지난주에 집회 준비를 위해 기도원에 다

신앙생활에 무엇이 녹아 슬었습니까? 기도, 말씀, 전도, 찬양, 봉사, 구제, 다 녹슬었나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다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있을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의 밤이 될 뿐입니다. 박차고 일어나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의 왕권과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달려온 우리 예수중심 아입니까? '너도 가자, 가자' 하며 주위에



께서 자유로 인도하실 그날을 믿고 기도했기에 우리 모두 자유의 기쁨과 예배회복의 감격을 누려도 좋을듯하다. 목사님께서서는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일성으로 기도원 춘계산상집회와 당장 이번 주일부터 총동원주일을 선포하셨다. 오는 5월 9일 월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드디어 춘계산상집회가 열린다. 전국의 교역자, 성도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우리 기도원이었는데, 2019년 추계집회를 끝으로 2년 넘게 만나지 못한 셈이었다. 고대하고 기대하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모두가 벅찬 가슴을 안고 기도원으로 가서 하나님도 만나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들도 만나자. 목사님은 코로나로 인해 잠자던 신앙이 모두 회복되는 시간을 갖자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녀왔습니다. 기도원 직원들은 불철주야 기도원집회 준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잠자던 신앙들이 모두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녹슨 연장을 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 내가 해외 세미나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녹이 슬었습니까? 기도가 떠난 영혼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이 끊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의 불을 붙이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불이 붙지 않고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을 북돋아 일으켜 함께 기도원으로, 우리의 성산으로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복을 넉넉히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못줘서 몸살 나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중풍병에서 고침 받은 자에게 다시 시작하라 하신 예수님, 간음한 여인에게 다시 시작하라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며 다시 시작하라 명령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기회는 잡는 자가 임자입니다. 이번 춘계산상집회를 통해 성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춘계산상집회

장소: 5월 9일(월)~12일(목) 장성: 장성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호텔예약: 5월 3일(화) 오전 10시 (www.jcc.tv 인터넷예약)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5:12~19)

의욕이 없는 것은 꿈이 없기 때문이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15:5).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3:10).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4:19).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먼저 이렇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왜냐? 꿈이 있어야 의욕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의 계란보다 내일의 암탉을 키워라

가장 불쌍한 사람은 못 배운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몸이 아픈 사람도 아닙니다.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故)정주영 회장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세계적인 기업가인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몸이 약했고, 지지리 가난했으며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조건을 이겨내고 성공에 이른 것은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급 자동차면 뭐하겠습니까? 달려갈 곳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최신형 핸드폰이면 뭐합니까? 전화 걸 곳이 없고, 검색할 것이 없다면 그것 역시 쓸 데 없는 고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자가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꿈은 곧 목표입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인생의 비극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달성하고 싶은 목표, 곧 꿈이 없는 것이 인생의 최대 비극입니다. 그런 자는 매사에 의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삶의 의욕이 없습니까? 그것은 세상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못 배운 탓도, 부모를 잘못 만난 탓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생기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모세를 보세요. 도망자로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모세는 날이 새면 그저 양들을 목초지에 풀어놓고 하늘이나 올려다보는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이라는 목표가 생기자 없던 의욕이 샘솟았고, 의욕이 샘솟으니 지혜도 생기고, 통솔력도 지닌 위대한 지도

자로 변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스승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베드로, 그에게 꿈이란 아예 없었습니다. 당연히 삶의 의욕이란 없었습니다. 그저 그물이나 던져놓고 세월을 낚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표가 생기자 사도라 칭함이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꿈은 이렇듯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꿈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난항에 부딪치면 더욱 의욕을 불태우지요. 야곱의 목적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여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금의환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그 래서 외삼촌이 자신을 속여도 좌절하지 않았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불일 겨를도 없이 일해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 다. 엘리사의 꿈은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꼭 이루고야 말겠다, 기필코 그리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쉽게 이뤄졌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벧엘에서, 예리고에서, 요단에서 엘리사에게 계속 ‘가라, 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야의 승천까지 지켜보며 그의 곁을 끝까지 사수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고 엘리야의 빈자리를 승계했습니다(왕하2:1~14).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반드시 전쟁에 이겨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던 입다, 꼭 아들을 얻고야 말겠다고 기도한 한나, 이들 모두 꿈이 있었기에 포기, 좌절하지 않았습니 다. 여러분, 목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지, 목표에

다가가면 다시 목표가 저 멀리 도망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치약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올라가다 중간에 포기하고, 3부 능선, 7부 능선에서 발이나 먹고 놀다가 내려오니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고, 또 찬송도 하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 희망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꿈을, 희망을 버린 것’이라고요.

포기하는 자는 스스로 인생의 터널을 동굴로 만들어버려 그 안에 갇혀 살다 갑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나가면 탈출구가 있는데 포기하고 거기에 주저앉아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버

리 고 마는 것입 니다. 실패의 원인은 포기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다가 천 번에서 그만뒀다면 실패로 남았을 겁니다. 거기가 인생의 동굴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기에 2천번 만에 성공했고, 터널을 빠져나와 광명의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부끄러움 때문일 겁니다. 자존심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적의식만 분명하다면 그깟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성공하면 팔아먹은 자존심, 일순간 다 돌아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은 예수님만 만나면 팔이 나음을 입을 거라는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녀의 면전에 대고 “개 같은 여자여, 어딜 감히!”(막7:27)라며 자존심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십시오.”(막7:28)라고 했더니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극찬하셨고, 소원을 이뤄주셨습니다(마15:28).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그분은 인류구원, 곧 저와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다 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 여러분, ‘과정은 결과를 대변할 수 없지만, 결과는 과정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늘,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흐지부지한 것도, 신앙에 열정이 없는 것도, 조그만 시험이 와도 무너지는 것도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꿈, 그날에 받을 상과 면류관에 대한 꿈이 없거나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29~30)는 말씀이 꿈이 되었기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 다. 그 꿈이 있었기에 타협하지 않았고,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8)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주를 위해 참으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꿈은 인생의 나침반이다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산 우리를 위해 천국과 상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하겠지요(고전15:19). 우리가 주일에 놀러가길 합니까? 되레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살지요. 목숨보다 귀하다는 돈을 내면서 주의 일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 꿈을 향해 가는 기쁜 길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핍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선전들은 목숨도 내놓았는데, 까짓 주를 위해 욕 좀 먹고, 손해 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꿈이 있는데요. 현재의 고난쯤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롬8:18).

부활절을 맞아 부디 여러분의 꿈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의식이 살아나고, 내세의 소망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롬8:24).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시장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

로브는 전반적인 시장 추세, 특히 투자할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의견을 제시할 때 무엇보다 중시해야할 요소는 실제 주가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 주가가 ‘고평가’됐든 ‘저평가’됐든 주식가치를 결정하는 건 바로 주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의 이론적 가치는 물론 지금 시장이 매겨놓은 가치가 얼마인가를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매일 발표되는 시세표를 통해 주가와 거래량의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중요하건 아니건 모든 관련요인들이 시장에 반영되며, 대부분 시장 그 자체의 움직임이 매수와 매도를 불러오기 때문이지요. 이 같은 시장의 움직임은 실제로 뉴스가 나오기 전에 뉴스를 정확히 예측해주는데 주가와 거래량의 변화는 기업분석과 미발표 정보를 미리 반영한 시장의 예상을 정확하게 확인해줄 뿐 아니라 잘 몰랐던 종목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주목할 수 있도록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줍니다.

이러한 시장 움직임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간입니다. 아주 두드러진 강세나 약세 움직임도 시장 사이클의 다른 시점에서 보면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주식이 오랜 하락세를 보인 뒤에 꾸준히 거래량이 늘며 강세를 이어간다면 아주 뚜렷한 강세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주식이 주도주로 떠오르면서 다른 주요 종목들과 함께 오름세를 탄다면, 시장 전반의 흐름이 반전하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

니다. 반면 시장 전반의 강세 분위기를 전혀 타지 못하던 종목이 뒤늦게 거래량 증가와 함께 오름세를 보인다면 이런 강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앞서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주도주가 더 이상 상승세를 타지 못할 경우 시장전반의 강세가 이제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장 움직임에 대해 판단할 때는 반드시 이미 알려진 뉴스는 물론 알려지지 않은 뉴스와 연관을 지어 판단해야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주가가 곤두박질칠 정도의 충격적인 뉴스에도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갈 경우 아주 강력한 강세신호가 될 수 있는 반면, 정말로 획기적인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횡보하는데 그친다면 이는 결정적인 약세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로브는 개별종목의 주가 움직임은 반드시 주식시장 전체의 흐름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장이 기술적 조정국면에 있을 때 하락폭이 가장 작은 종목이나 기술적 반등국면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로브는 주가를 결정하는데 결국 인간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모든 시각에서 자신의 결론을 검증하여 그 타당성에 물음표를 던져보고 정반대의 의견도 가져보라고 조언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확인과 검증과 점검은 유비무환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신앙도 투자도 늘 점검해보시지요. **이미경 권사**

:: To Be Succeeded ::

순종, 축복의 지름길

지난겨울, 주일에 있던 일이다. 그날은 체육관 사정으로 아들과 딸이 다니는 주일학교 예배도 온라인으로 송출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그런데 전날 저녁, 담임 전도사님으로부터 아이들이 교육관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장으로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영상을 송출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미 밖에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어 잠시 망설여졌지만, ‘꼭 오라’는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다음날 아침 수북하게 쌓인 눈길을 지나 교육관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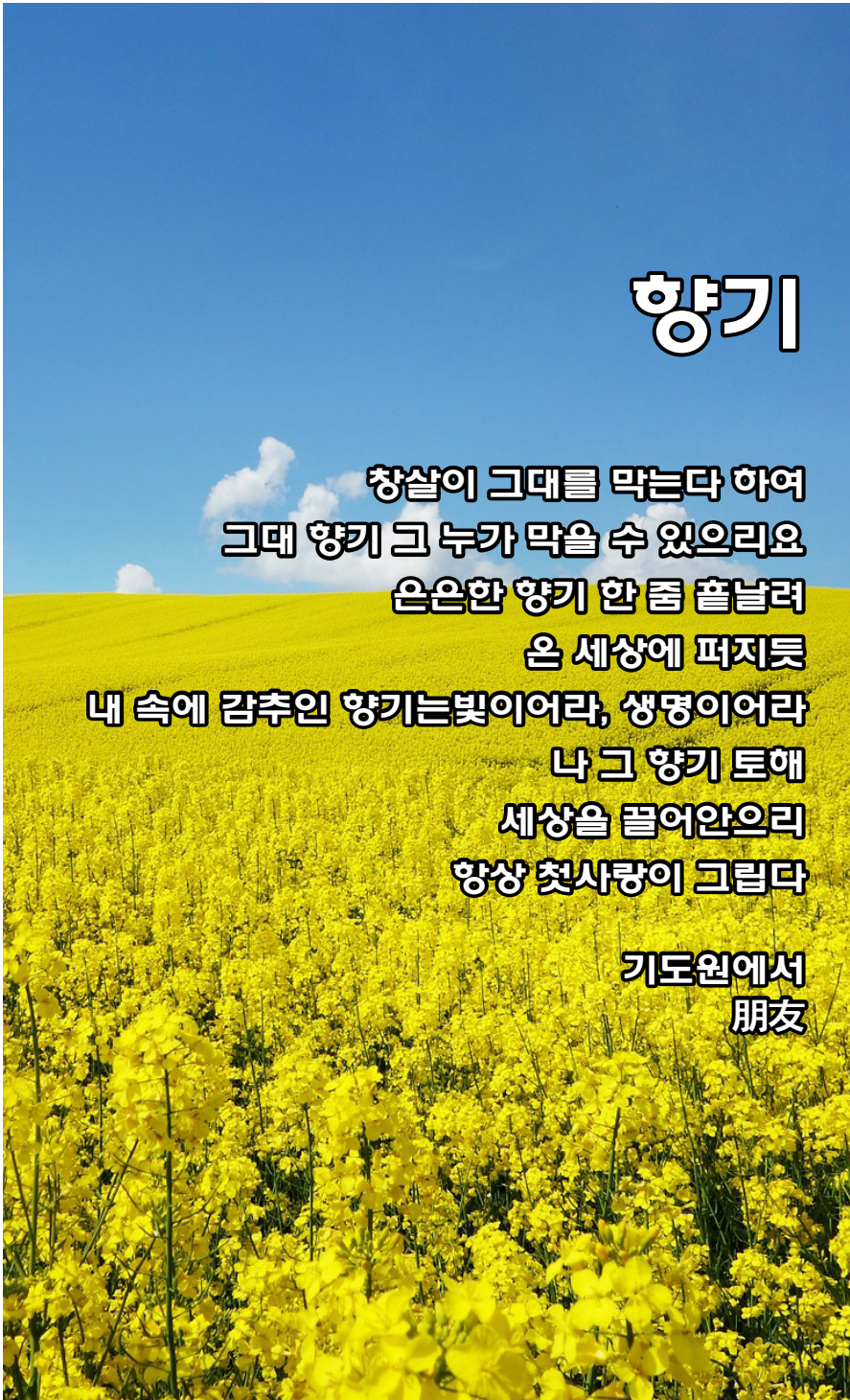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놓고는 익숙지 않은 곳이니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대예배실로 들어가는데, 안내해주시는 담당 전도사님께서 “앞쪽에 앉으세요.” 하신다. 내 마음과는 달랐지만 앞쪽에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셨다. 헌금송을 따라 부르는데 하늘로부터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 뺨속을 가득 채웠다. 나태함과 안일함에 저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또 주변시선을 의식해서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결코 받을 수 없었을 은혜였다.

순종한 모든 이들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

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00여 년간 방주를 만들어 대홍수 때 그 가족까지 모두 구원을 받았고,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어린 소녀와 주의 종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고질병이었던 문둥병을 고침 받았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에 즉시 통회했기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야를 죽인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나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 왕과 가룟 유다의 말로는 비참했다.

마귀는 불순종의 대명사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의 담으로 막히게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사 십자가에 달려 피흘리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구원과 생명의 문을 활짝 여셨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윤택한 복을 받는 것이다. 나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게으름과 안일함이든, 자존심이든, 두려움이든, 그 무엇이든 싸워서 이기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복 받는 삶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국진 사모



향기

**향살이 그대를 막는다 하여
그대 향기 그 누가 막을 수 있으리요
은은한 향기 한 줌 흩날려
온 세상에 퍼지듯
내 속에 감추인 향기는빛이어라, 생명이여라
나 그 향기 토해
세상을 끌어안으리
항상 첫사랑이 그림다**

**기도원에서
朋友**

:: 생명의 말씀 ::

그의 의(義)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주님의 의(義)의 영문 성경 표현을 보고 무릎을 친 적이 있다. 의(義)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What God wants, What he wants)이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의가 된다.

내 소견과 판단에 의해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전도자의 말이 극히 공감된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너는 그래도 세상에서 누릴 것 두려웠잖나?” 하셔서 “아이고, 아닙니다. 그저 조금 흥내나 내본 것입니다.” 하였다. 그 잘난 흥내로 교만했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헛되고 헛되며 무익한 세월뿐이다.

언제 기도 응답을 받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된다. 한나는 하나님이 태를 담으셔서 임신치 못하여 첩 브닌나로부터 심한 수모를 받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른다. 마침내 한나의 기도가 상달됐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

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삼상1:10~11).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지만 여호와께 드린다는 서원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義)이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를 보내시고자 한나의 태를 담으셔서 고통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셨다.

‘그의 의만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도 지난하다. 목사님께서 물으셨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대답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었다. 지금의 고통을 통해 값진 미래로 인도하시는 것인지, 꼭 겪어야 할 산통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직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할 뿐. 참고 인내하며 인도하심을 기다린다.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해주실 참된 삶을 확실하게 해주신 점이다. 그래서 장래에 주실 큰 영광을 위해 참고 기도한다.

모든 수고가 바람을 움키는 것과 같으니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리라. 아멘!

이광주 목사

복음을 광고하자!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한 제약회사의 커다란 광고판에 눈길이 간다. 그 광고판에 적힌 문구는 바로 ‘JESUS LOVES YOU’! 이 회사의 창업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의 회사가 민족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고심하던 끝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옥외광고판을 기획하였고, 경부, 중부, 호남, 남해 고속도로는 물론 올림픽 대로에도 이 광고판을 설치했다고 한다. 기독교 홍보용이라는 이유로 불신자와 타종교인들에 끊임없는 원성을 샀지만, 창업주는 이를 개의치 않았고, 많은 이들이 그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얼마 전, 미국의 한 기독교 재단에서도 약 1,200억 원을 들여 유튜브, 페이스북, 옥외광고판, TV 등에 대대적인 복음광고 캠페인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히겟츠 어스(He Gets Us)’, 즉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문구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캠페인 역

시 미국 기독교 사상 최대 규모의 광고다보니 이렇게 큰 물질을 광고에 쓰는데 대해 원성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지속적으로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구약시대 성막에서 드리던 5가지 제사 중 화목제가 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화목제물로 드린 소나 양을 제사 후, 이를 안에 요리하여 제사장 및 주변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 그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했다. 이때, 기한 안에 먹지 못한 고기는 버려야 하니 되도록 많은 자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며 신앙을 나누지 않았을까 싶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되도록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 오늘 내가 드리는 제사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과 기쁨을 나눠야 하는 것이다. 화목제물을 며칠 더 나눠먹으려 해도 이들이 지나면 부정하게 되어 아무 의미가 없어졌던 것처럼, 모두에게 정해진 죽음의 때를 맞이하거나 예수께

서 재림하시는 그 기한이 되면 전하고 싶어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나눌에 누구의 비난이나 편견 앞에 멈춰야 할 이유는 없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릴 때, 가룟 유다의 생각에 그것은 낭비였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그는 대책 없이 미련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그들의 결말을 읽는 우리는 알고 있다. 누가 하늘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므로 어떤 방향이든, 무슨 방법이든 많은 이들에게 작은 한 마디, 작은 손길 하나라도 ‘복음을 광고하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딤후1:2~3).

하인명 집사

우크라이나를 도움시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95001-01-110736

Good News

길의 선택에 따라서 목적지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는 길도 물어 가라’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매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영생에 관련된 사항은 ‘내가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나?’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

다.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길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잠깐 생각을 빼앗겨 등산로를 벗어나 버렸습다. 길을 찾는다고 이리저리 뛰어들다보니 해는 저물어가고 가는 곳마다 절벽만 나타났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스마트폰의 GPS지도를 켜니 내가 있는 위치와 등산로 표기가 뜨기에 목표를 정하고 가다 보니 등

산로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의 지도인 성경을 보고 다시 궤도수정을 해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명예, 쾌락 등,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 받는 길이고 영생복락의 천국 가는 길입니다.

상화평 목사

오해하지 마라

성도들이, 제자들이 나를 오해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면 생각이 깊다. ‘자식은 자식이구나, 제자는 제자구나.’ 생각한다. 누가 부모 마음을 알고, 누가 스승의 마음을 다 알까. 잘 되라는 부모의 당부를 잔소리로, 참견으로 오해하는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스승의 징계를 저주로 받는 제자들….

나는 38년을 한결같이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셨을까’ 생각하며 묵회했다. 어찌하면 한 영혼이라도 살릴까, 어찌하면 저들을 성장시킬까, 어찌하면 저들을 잘 되는 길로 인도할까 부심하고 고뇌하며 기도했다. 진실은 진실된 자에게만 통하는 법, 그런데 저들은 이미 오해라는 틀에 갇혀 있으니 나의 진실과 진심이 통할 리 있겠나.

오해(誤解), 잘못 풀었다는 것이다. 오해는

상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 생긴다. 오해는 독버섯과 같다. 독버섯은 먹을 수 있는 버섯보다 아름답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다. 오해는 더 타당해보이고, 그럴싸하다. 그러나 오해는 서로 원수 되게 하고, 결국 죽게 한다.

성경이 이를 증명한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에 대해 사울이 오해한다. ‘저런 인기라면 곧 내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겠는데?’ 했다. 다윗은 변한 게 없는데,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믿음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결국 오해라는 독버섯을 먹은 사울이 죽었다.

아합이 선지자 미가야를 오해한 사건도 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못을 놓고 전쟁하려할 때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

명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러나 미가야는 반대했다. 아합은 미가야가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다고 오해해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간다. 그러나 오해라는 독버섯은 아합을 죽였다.

가룟 유다는 예수로 인해 돈도 벌고, 명예도 얻을 줄 알았다. 오해였다. 그것이 아닌 것을 안 그는 예수님을 은 삼십 냥에 팔았고, 결국 오해의 독버섯으로 인해 그는 죽고 말았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믿음이 부활해야 한다. 믿음이 부활하면 모든 오해는 사라진다.

봉우

오, 믿음이여

차를 타고 가다가 덜거덕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확인을 하거나 가까운 정비소에 들러 점검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에 이상이 없도록 명하고, 천사들이 차를 보호하도록 명할 것이다. 그리한 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그 차는 점검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생각은 접어두고 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 더군다나 동승자가 있을 경우 동승자에게 이 강한 믿음을 선포하며 의심하지 말라고 다그쳐야 할까? 점검을 받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 크리스천이라면 한 번씩은 빠질 수 있는 믿음의 함정인 것 같다.

어떠한 확인이나 조치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명했으니 이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 동승자에게도 동일한 생각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는 행위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를 직시하여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더욱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동이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옷과 음식은 주지 않으면서, ‘따뜻할지여다’, ‘배부를지여다’라고 선포하고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고만 한다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옷과 음식을 주면,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해결될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믿음만을 앞세우면 그것은 무책임에 가깝다.

나의 믿음, 지금 어디에 서있을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약2:14).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friendly

